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본부,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MG지역희망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지역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성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이사, 최지능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오석균 새마을금고중앙회이사장, 박경란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 관장등이 참석했다. 김성진 전북지역의사는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이동계약을 받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치량을 통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여 지역 주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란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MG새마을금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차량을 계기로 이동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진행

남원시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와 남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민간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마을 치유의 대화 수업 △합리적인 연금 자산 관리 △가치 중심의 홍보를 말한다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남원시는 해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시행과 보수 교육비, 든든수당 지원 및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복지과 김현우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나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은 지난 17일에 관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배선 및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위 사업은 농업인행복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령의 농업인들 대상으로 돌봄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말벗 등 정서적 위로 제공, 노인복지 정책 정보 안내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준다.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무주농협은 농업인행복센터를 운영을 통해 관내 고�령 어르신의 어려움을 적극 헤아려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김범석 지부장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고�령 농가 어르신의 주거복지 만족을 드려 농협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며 "농협은 농협답게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안성면 사교웰컴센터 준공

공동급식소, 농촌 체험 등 다목적 활용 공간... 마을공동체 활력 충전 기대

무주군은 지난 19일 안성면 사교마을에 '사교웰컴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사교웰컴센터는 주민 공동체 및 방문객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지난 2023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기 시작해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됐다.

연면적 135.2㎡ 규모의 센터에는 공용공간,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춰져, 마을 공동급식소를 비롯한 방문자센터, 농촌체험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교새마을회와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준공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오광석 무주군의회의장,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마을사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왔고, 이번 자율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자, 방문객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며 "사교마을이 안성을 넘어 무주군의 자란이 되고 마을사업의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역량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해 온 무주군 안성면 사교마을은 2018년부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체사업 등 예비단계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자율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까지 사교웰컴센터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업인 전인구 씨, 순창군에 고향사랑 2천만원 기탁

순창 출신 기업인 전인구 전 (주)테크윙 대표(현 고문)가 지난 18일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 원을 순창군에 기탁하며,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한도 상향 이후 첫 최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 고문이 기탁한 이번 금액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2023년 이후 순창군에 접수된 기부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더욱 뜻깊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에도 고향 순창에 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2년 연속으로 고액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한 기부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인구 대표는 "순창군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고향사랑기부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정읍시 인구운동 릴레이, 방송·세무기관도 힘 보탤다

정읍시가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지역 기관들의 동참이 이어지며, 시민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LG헬로비전 전북방송과 정읍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정읍사랑 주스갯기' 캠페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읍 인구확대에 대한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16일 김영덕 시민소통실장과 직원들은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을 방문해, 캠페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 홍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사 관계자들은 "정읍시의 노력 덕분에 생활인구가 증가가 체감된다"며 "캠페인이 널리 확산돼 정읍이 인구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8일에는 김희정 세정과장과 직원들이 정읍세무서를 방문해 '정읍사랑 주스갯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송광근 정읍세무서장은 "고향 정읍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며 "세무서도 캠페인 확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정읍사랑 주스갯기(점인 유도) △정읍사랑 머무르기(체류인구 확대) △정읍사랑 함께살기(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스갯기'는 정읍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타 지역에 둔 시민의 전입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여성가족재단,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MOU 체결·포럼 참여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마곡)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광역 산하 30개 지역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단채로 체결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중심과제인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관 확충'을 위해 구성된 협력체로, 향후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확산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과 함께 개최된 '2025 이민정책 포럼'은 법무부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이민정책의 모색: 전략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지역기반 비자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계절근로비자, 지역특화비자, 광역형비자 등 지역 비자정책의 사례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제2부에서는 '지역기반 동포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지역별 동포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전주지부, 대정초서 식습관 교육·음식 체험

농협전주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지난 18일 배움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전주대정초등학교(교장 문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교육 및 스톱푸드(食)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아침밥 꼭 먹기'란 주제의 식습관 교육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된 가운데, 아침밥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한 내용이 학생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전달됐다. 이어 진행된 '로컬푸드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이 직접 텃밭에 농사지는 상추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재료를 활용해 햄버거를 만들어보며, 우리 농산물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농업의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도동동, 제조작업 투입 인력 안전·보건 교육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여름철 본격적인 제조작업을 앞두고 관내 제조 작업에 투입될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조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중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예초기 작업 지침,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예방 요령, 개인보호장비 착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철 도동동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작업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했기를 바란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북동 지사협, 밑반찬 나눔 봉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희)는 지난 17일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세대 포함 취약계층 100세대에 행복동네만들기 밑반찬 나눔 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의 인부 확인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고독사 예방과 위기 상황 완화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마련됐다.

박종희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웃들이 드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진북동을 행복동네로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배수 진북동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중화산2동, 어르신 삼계탕 나눔 잔치

전주시 중화산2동(동장 최정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대곤), 자생단체연합회(회장 조익빈)는 지난 18일 관내 재인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삼계탕 나눔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해바라기봉사단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협력했으며,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 식사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용품 꾸러미, 생와당, 파스 등 기념품이 전달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희성 기자



남원 죽항동, 초복맞이 복달임 행사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지난 18일 초복맞이 건강한 여름나기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어르신 등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죽항동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기독교살림인회, 반야돌솥밥, 하정동커퍼 등 종교단체와 관내 업체에서도 후원했다. 이날 발전협의회원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과 후원받은 빵을 개별포장하여 지역어르신 등 130여 명의 가정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